

화려한 태권도 경기 펼쳐진다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 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 11~13일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함께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 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 (이하, 다이아몬드게임)을 11일부터 13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다이아몬드게임은 ‘별각형 찰호 형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선수들은 경기에서 찰호 벽을 타고 발차기를 하며 자유롭게 교대를 하는 등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를 선보인다. 특히 최철단 영상 표현물과 음향 효과 등을 적용해 ‘화려하고 볼거리가 넘치는 태권도’를 선보이며 태권도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눈과 귀 그리고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개최국 대한민국을 비롯해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184명이 참가한다. 경기종목은 G-4 등급의 혼성 단체전과 주니어 복식전 2체급, 시니어 개인전 8체급, 복식전 4체급, 혼성 단체



태권도진흥재단은 대한태권도협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함께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 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을 11일부터 13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4 세계 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

전까지 총 5개 종목을 진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IOC ‘올림픽 의제 (어젠다) 2020+5’ 가운데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다이아몬드게임에서 혼성 단체전을 진행하고 세계태권도 연맹 등과 함께 향후 올림픽 종목 추가 채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다이아몬드게임이 열리는 11일부터 13일까지 태권도원

방문객을 위해 경기가 열리는 T1 경기장 앞 광장에서 풍경(작은 종) 만들기, 풍선 아트 등 문화 체험과 대형 젠가·다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놀이장을 운영하며, 비눗방울과 미술 등 특별 공연과 경기 관람 인증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태권도 경기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품질 장수 사과 생산 최선

군, 여름철 기후변화 대비 현장 기술지도 실시

장수군이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파수원 현장 행정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여름철 고온 및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고품질 장수 사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 지도는 사과 과원을 대상으로 일소피해와 병해충 예방 중심의 기술 지도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상예보에 따르면 장수군을 포함한 내륙 중산간 지역의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돼 농작물 생육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관수시설이 미비한 사과 과원을 중심으로 대체 물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농가별로 다양한 수분 유지 기술을 맞춤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수 시기와 양은 토양 수분 상태에 맞춰 조절하고 뿌리 주변(근권부)의 수분 유지가 생육 안정화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장마 전후 갈색무늬병 예방을 위한 약제



를 교호 살포하고 병든 잎을 제거할 것을 당부했고 고온기에 급격히 밀도 가 증가하는 응애류는 정밀 예찰 후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소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실이 직사광선에 갑자기 노출되는 시기에 도장지를 과도하게 제거하지 말고 차광망 설치와 갈습제제 살포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 12일 개장

무주군 설천면 소재의 무주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12일 개장에 8월 24일까지 운영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매주 월요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시설점검 시간이다. (우천 또는 기타 위험 발생 시 임시 휴장) 무주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은 총 767.36㎡ 규모(최대 수용 인원 100명)

로 성인용 풀장(수심 1.2m)과 인공폭포, 유아용 풀장(수심 50cm)을 갖추고 있어 모든 연령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탈의실(타커룸 50개)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이용료는 1일 기준으로 성인 8천 원, 청소년 7천 원, 어린이(4세~초등생) 6천 원이다. 20인 이상 단체는 할인받아 성인 6천4백 원, 청소년 5천6백 원, 어린이 4천8백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무주 군민은 물론, 진안군과 영동군, 금산군, 거창군, 김천시 등 인접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들은 이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연일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관리 강화

진안군, 보건기관 중심 예방 수칙 홍보·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진안군은 연일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6월 20일부터 보건진료소 등 23개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폭염대응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자주 마시기 △한낮 외출 자제하기 △시원한 환경 유지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무더위 쉼터 적극 이용하기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도 매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온열질환은 무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온열질환의 발생 현황과 특성을 모니터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보건서비스와 안부전화를 병행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한국수자원공사 댐지원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주관한 2025년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에서 ‘용담호 탐방객 윈터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참여해 발표 심사를 거쳤으며, 이 가운데 총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진안군은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19억 8,500만 원 중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사업 위치는 용담면 수천리 542-24번 지로, 기존 용담호미늘관으로 사용되

던 수천휴게소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관광시설로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용담호 탐방객 윈터 조성’ 사업은 용담호 수변 조망의 최적 입지에 위치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함께 선정된 ‘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12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K-water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관로 개량 본격화

무주군이 지역 내 21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7월에 착공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1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하수관로 8.8km를 굴착 교체하는 것을 비롯해 맨홀 148개소를 교체한다. 이번 사업 추진은 하수관로 기술 진

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주군은 지역 내 21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6월에 환경부 재원 조달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소방서, 여름철 산행 안전수칙 준수 당부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최근 지속되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산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진안소방서에 따르면 여름철 산행에서는 탈수, 열사병,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체력 부족은 물론 높은 습도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진안군 구룡산에서는 산행 중이던 50대 남성이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헬기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소방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예방하고, 통풍이 잘되는 옷과 모자, 선크림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력에 맞는 산행 코스를 선택하고, 기상 예보를 확인해 악천후 시 산행을 연기하며, 응급처치 용품도 준비해 두기를 권고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읍, 민관협력 클린하우스 정비사업 실시

장수군 장수읍 행정복지센터와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장수읍 남동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정비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 쓰레기 장기적치로 인해 위생불량 및 안전사고 위험에 놓인 취약가구를 발굴해 적치물 정리, 방역·소독, 가구 재배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의체는 지난달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고 지속적인 가정 방문과 부양의무자 협의를 거쳐 설득을 이끌어내 사업을 원활히 추진했다. 특히 정비 후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건강관리 여건이 개선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점욱 민간위원장은 “클린하우스 사업은 저장감각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웃 간 소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